

SPECIAL FEATURE

Korean Artists Today 100+16

2016년 새해가 밝았다. Art는 1999년 창간 이후 지난 17년간 한국미술의 역동적인 흐름과 궤를 함께 해 왔다. 20세기 미술의 유산을 남김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발 빠르게 포착하며 한국미술의 ‘안과 밖’을 종합무진해 왔다. 이제 Art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2016년의 문을 연다. 이번 신년호를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 특별호로 기획, 작가들의 활약상을 토대로 지난해의 ‘미술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Korean Artists Today 100+16’은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이 두드러졌던 한국 작가 116명을 선정, 작가의 최신 약력 및 작품 화보를 정리한다. 여기에 주요 평론의 일부를 세심히 발췌, 소개해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이 발췌문을 토대로 편집부에서 뽑아낸 작품의 ‘키워드’를 글머리에 심는다. 특별호 제목의 숫자 ‘100+16’은 20세기의 ‘100년’에 21세기의 ‘16년’을 더한 것이다. 본지가 주목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만남’을 상징한다. 선정 작가의 범위는 2015년에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부터 주요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로 정했다. 또한 작가들의 개인전 장소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국내 지역 미술관 및 전시공간부터 해외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족적을 세심히 돌아봄으로써 지역별 균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원로작가부터 중견, 중진작가를 주축으로 하되, 그동안 미술계에서 맹활약한 30대 중후반 이상의 작가까지 고른 연령 기준을 세웠다. 물론 Art는 30대 이하 신진작가들의 활약에도 늘 주목하고 있다. 향후 별도의 기획을 통해 신진작가들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마당’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잡지의 역할과 기능도 변한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고, 종이 잡지에 대한 열광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Art는 잡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온라인의 막대한 정보량과 빠른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종이매체만의 느리고 깊은 호흡을 늘 고민한다. 지면 위에 지나간 역사를 각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것.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앞으로 Art는 매해 신년호를 이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로 꾸릴 것이다. 매년 이 특별호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그려 낸 한 해의 미술지형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란다.

함경아 Kyungah Ham / b. 1966

서울대 회화과 및 뉴욕 스크로브비주얼아트 졸업 **Solo Exhibitions** 국제갤러리(2015), 아트선재센터(2009), 씬지스페이스(2008) 등 **Group Exhibitions** (서울 빨리, 빨리)(릴 트라이포스탈 2015), (동아시아 페미니즘: 판타지아) (서울시립미술관 2015),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5),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국립한글박물관 2014), (교감)(삼성미술관 리움 2014) 등 **Awards** 파리 쿠팡 데스 리코레트 그랜트(2004) **Residencies** 한국?독일 NRW 프로그램(2012),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2009), 록펠러재단 벨라지오 레지던시(2008) 등



왼쪽 · (What you see is the unseen / Chandeliers for Five Cities 02-01) 2013-14
오른쪽 · (Needling Whisper, Needle Country / SMS Series in Camouflage / Are you lonely, too? 01-001) 2014-15

분단체제의 현실 '수놓기' 함경아는 권력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탐구하는 작가다. 사회 체계, 공권력, 지식 체계, 미술관 등 주류 권력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그의 작업은 미술 안과 밖의 제도 비평을 실천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자수 프로젝트>에서 함경아는 거대 이념 분쟁의 마지막 남은 생생한 증거인 분단의 현실 속에서 내밀하고 특별한 소통을 시도한다. 함경아의 첫 번째 비라는 전쟁과 테러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북한 고어체로 개작한 국내외 인터넷 기사들과 이라크 어린이들이 그린 전쟁 공포증적 이미지들을 알레고리처럼 재구성한 것이었는데, 그는 이를 북한 자수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여 대형 자수 작업으로 옮기도록 하는 작전을 구상했다. 함경아가 장시간의 아날로그적 수작업을 전제하는 자수의 방법을 택한 이유는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글로벌 정보를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남한과 대조적으로 폐쇄적인 감시 사회에서 통제된 정보만을 접할 수 있는 북한의 현실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 박준영(삼성미술관 리움 책임연구원)

